

##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 우원식 국회의장 예방

- 위기극복과 민생 안정을 위한 추경안 신속 처리를 요청
- 중장기 전략 수립, 중기재정계획, 예산편성 등 주요 과정에서 국회와의 긴밀한 소통과 협력 의지 표명

박홍근 기획예산처 장관은 3월 31일(화) 13시 20분 국회의장실에서 우원식 국회의장을 예방하였다.

\* 참석 : (기획처) 기획예산처 장관, 정책기획관, 대변인 (국회) 국회의장, 비서실장, 정무수석

장관 취임 후 이루어진 첫 예방으로서, 예산편성과 중장기 전략 수립 등 재정운용 쏠 과정에서 국회와 유기적으로 협력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하였다.

우원식 국회의장은 모두발언에서 “박홍근 장관과 저는 오래된 인연으로서 현장과 민생이 최우선이라는 점에 공감대를 형성하고 있다”고 언급하며, “대전환시기 재정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 상황에서 책임자가 임명되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중동상황이 엄중한 가운데 정부로부터 추경안이 제출된 만큼, 국회의장으로서도 신속한 추경처리를 위해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하였다.

박홍근 장관도 “중동 전쟁 등 대외 여건 악화로 민생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에서, 취약계층 보호와 경제 안정이 시급하다”고 강조하며, 정부가 이날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추가경정예산안의 신속한 처리를 요청하였다.

아울러 “대전환기 대한민국 미래를 위한 중장기 발전전략을 수립하고, 이를 5년단위 국정과제, 중기재정계획, 단년도 예산과도 연계할 나갈 것”이며, 이 모든 과정에서 “국민의 대표인 국회와 함께 만들어 갈 때 비로소 국민으로부터 신뢰받고 현장감 있는 결과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기획예산처는 앞으로도 국회와의 긴밀한 협력을 바탕으로 민생 안정과 구조적 위기 대응을 위한 정책을 속도감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담당 부서	기획예산처	책임자	과 장	류승수 (044-214-1410)
	기획재정담당관실	담당자	사무관	박제용 (jypark0601@korea.kr)